

2020년 11월 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평가과 과 장 문운경(054-912-0501), 사무관 리윤경(0502)/제공일: 11월 5일(총 3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카카오톡으로 세계 동물질병 발생정보 받는다

- 전자정부 시대 흐름에 부응하여 해외 동물질병 발생정보 공유 서비스 개선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◆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0년 11월 상순부터 기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던 『해외 동물질병 발생정보 공유 서비스』를 카카오톡 채널로 전환하여 제공함으로써 가축방역·검역상 실효성 증대

-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해외 동물질병 동향 공유의 편의성 향상 및 정보 양질화로 국내 방역 및 검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‘해외 동물질병 정보’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통해 누구든지 손쉽게 자료 공유가 가능

□ 농림축산검역본부(본부장 박봉균, 이하 ‘검역본부’)는 전자정부 시대 흐름에 부응하여 그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왔던 『해외 동물질병 발생정보 공유 서비스』를 2020년 11월 상순부터는 스마트폰 기반인 카카오톡 채널로 전환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.

- 검역본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에서 발표하는 동물질병 발생 정보를 매일 수집·분석하여 『해외 동물질병 발생정보 공유 서비스』를 방역 기관, 유관 단체 등의 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.
-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,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, 코로나19 등 신종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전 세계의 발생 정보는 관련 기관 및 수의·축산 분야에서 동물질병 및 인수공통 전염병 위기 대응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.

□ 그간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던 『해외 동물질병 정보공유 서비스』를 카카오톡 채널로 전환하여 제공함으로써 편의성 향상 및 정보 양질화 등의 개선이 기대된다.

- 기존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은 △ 수신 희망 또는 차단 요청 시 담당자가 수동으로 시스템에 반영하는 불편함, △ 문자 외에 추가적인 정보 제공의 어려움, △ 장문 메시지로 분류되어 비교적 고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.
- 이에 카카오톡 채널로 서비스를 전환하면, 앞으로는 △정보 수신자가 자발적으로 해외동향 채널을 추가·삭제할 수 있어, 해당 정보를 원하는 수신자에게만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된다. 또한 △정보 중요도에 따라 긴급보고, 발생지도 등 상세내용의 추가적 제공이 편리해진다. △카카오톡을 이용한 메시지 단가가 기존 문자메시지 전송 단가보다 30% 이상 저렴하여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.

☞ **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해외 동물질병 발생정보 공유 서비스 이용 방법**

- ① 최초 2주간 **현재 문자메시지 수신자 전체에게** 카카오톡 채널로 정보 발송 및 수신 동의 요청
※ 경과조치로 2주간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채널로 동시 발송
- ② 2주 경과 후 수신 동의한 수신자에게만 해외동향 정보 발송
- ③ **새로운 사용자**는 해외동향 채널 검색 후(검색어: 해외 동물질병) 수신 동의 할 수 있으며, 다음날부터 정보 수신

□ 검역본부 위험평가과 문운경 과장은 “국내 검역 및 방역 업무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『해외 동물질병 정보공유 서비스』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, 누구든지 카카오톡 채널 추가로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”고 밝혔다.



상세보기 주소
http://www.qia.go.kr/livestock/clean/listwebQiaCom.do?type=1_5hwwsdx&clear=1